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모습.

# 초역세권 도심 속 숲세권 프리미엄... 보안까지 완벽



(위에서부터) 단지 내 조성된 '수생 비오톱' 모습, 안산 자락길과 연결된 산책로와 휴식공간 모습. /김대환 기자

## 아파트의 미학(美學)

###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최근 찾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2분 정도 걸렸다.

초역세권인 단지를 향해 가는 동안 주변에는 '스트리트 상가' 등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었다. 상가의 분양·임대가 완료되면 '슬세권(슬리퍼와 역세권을 합친 말)'이 가능해 보였다.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일원에 들어선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지하 4층~지상 최고 18층, 10개동, 총 832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전용면적은 ▲49㎡ ▲55㎡ ▲59㎡ ▲75㎡ ▲84㎡ ▲114㎡ 등 다양한 타입으로 공급됐다.

아파트 정문에는 '푸르지오' 로고가 부각돼 멋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단지 외관은 강남권 고급 아파트에서 선보이는 커튼월 룩 방식으로 시공돼 고급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입주주민을 위해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판상형과 탑상형 등 혼합형으로 설계해 조망과 채광, 통풍을 극대화했다. 입주자들의 보행 편의를 위해 단지의 주차장 전체를 지하화했다.

단지에는 대우건설이 자체 개발한 첨단 보안 시스템인 '5ZSS(Five Zones Security System)'가 적용됐다. '5ZSS'는 단지를 5개 구역으로 나누고 첨단 장



'신기한 동물사전' 테마 놀이터.

3호선 무악재역서 도보 2분 거리 지하 4~18층 10개동, 총 832가구 남향위주 배치 조망·채광 극대화

자체개발 보안시스템 5ZSS 적용 지문인식 디지털 도어록 등 도입

인왕산 둘러싸인 숲세권 단지에 안산 자락길 연결 산책로 설치도

비를 활용해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보안 시스템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문인식 디지털 도어록과 스마트도어 카메라, 차량 위치 인식시스템, 지하주차장 LED 조명 제어 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등을 도입해 입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면서 "세대에는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과 에너지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스위치와 절수기 일체형 싱크수전, 절수형 양변기 등 친환경 그린시스템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단지는 안산과 인왕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숲세권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었다. 안산 자락길과 연결된 산책로를 설치해 쾌적한 여가생활을 가능하게 했다. 언덕 지형을 평탄화하고, 4기의 외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이동도 편리했다.

단지 내에는 깔끔한 느낌의 조경과 휴식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단지 내외부를 조망할 수 있는 테라스가든과 배드민턴장, 여러 가지 기구가 설치된 주민운동공간 등이 조성돼 있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주민 편의시설인 그리너리라운지가 설치됐다. 그리너리라운지에는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푸른도서관,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독서실 등이 마련됐다.

단지에는 다양한 콘셉트의 놀이터가 조성돼 있었다. '신기한 동물사전' 놀이터 중앙에는 커다란 호랑이 모형이 위치했다. 휴대폰 앱을 통해 동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증강현실 놀이터다. 여우모형 콘셉트의 놀이터는 물놀이터로 조성됐다. 가을·겨울에는 일반 놀이터로 이용 가능해 사계절 내내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한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도 설치돼 있어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었다.

단지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모습도 보여줬다. 연못을 만들고 수생식물과 나무를 심는 등 '수생 비오톱'을 조성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 뉴스비타민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중간선거사 공화당 승기 잡아... '경제'가 유권자들 최대 관심사  
 ▲中 코로나 제로 정책 고수에 "경제 전망 어둡다" /사진 뉴시스

▲러 독립언론 "러 징집병 5명 중 1명 최전선 도달 전에 사망"  
 ▲'긴급전화'가 이태원 참사 비명으로 변하다...외신들도 당국 지적



▲“日, 2030년 극초음속 유도탄 배치 검토...북중 위협 염두”  
 ▲바이든 연설서 “민주주의 공격받아...정치폭력에 맞서야” /사진 뉴시스